

후안 코욜잔 설계의 IMOCA 60, 회항 중에 선체 잘림

글 팀 제퍼리
옮긴이 장 영 주
2014. 4. 11.

“지구 서퍼”, 베르나르 슈탐

십수 년 전, 나는 미국 동해안의 유명한 요트의 고장인 뉴포트 샵 야드의 벤치에 앉아 눈앞에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옆에는 스위스 세일러 베르나르 슈탐이 앉아 있었다. 그때 그는 베룟크스5 오션스 단독세계일주에 우승한 직후였다. 이 승리를 계기로 그는 쇼트 핸드와 솔로(단독) 요트경기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었다. 그가 요트를 배운 것은 스위스의 주네브 호였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넓은 세계를 꿈꾸어 왔다. 그리고 이제야 그는 스스로를 “지구 서퍼”라 부르고 있다. 장거리 세일링을 수없이 해서 지구의 표면을 몇 번이나 가로질렀기 때문이다.

슈탐은 베룟크스5 오션스에서 5스테이지 중 4스테이지에 우승을 하여 문자 그대로 압승했다. 그러나 그 뒤로 그의 경력은 조심스럽게 말해서 내리막의 연속이었다.

그것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그는 늘 냉정하고 겸허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최근의 드라마는 그의 풍부한 경험에서 영광에 이르기



트랜셋 잭 버블 2013에 참가한 <슈미네 푸주라>. 슈탐은 필립 루크로와 한 조로 참가했다. <슈미네 푸주라>. 길이 5.80m. 흘수 4.5m, 배수량 8.5톤

까지 언제나 한 발짝씩의 사나이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회항 중의 사고

그것이 일어난 것은 작년 12월 중순, 프랑스 서해안에서 100마일쯤 떨어진 곳이었다. 그가 탄 IMOCA 60 <슈미네 푸라주>가 거기서 부서졌다. 슈탐과 크루인 다미안 규는 트랜셋 잭 버블(더블 핸드 대서양횡단경기)을 마친 뒤, 이 배를 카리브 해에서 프랑스로 가져가기 위해 회항 중이었다. <슈미네 푸주라>는 파도에 올려졌다 떨어졌을 때, 바우가 잘려 나갔다. 그것은 적층의 박리라든가, 프레임의 파손이라든가, 구멍이 났다든가의 문제는 아니었다. 바우 부분이 송두리째 잘려 나가서 선체 중심에서 45도로 비스듬하게 큰 구멍이 열리게 되었다.

잘린 부분은 킬과 마스트가 집중된 선체 중에서 가장 하중이 많이 걸리는 곳이었다. 프랑스 요트 미디어의 일부는 그 무렵 북대서양을 차례로 통과하고 있던 강대한 저기압이 이어지는 속을 향하여 배를 달리게 했다고 슈탐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올 겨울 최악의 태풍을 피하기 위한 코스를 잡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메인세일을 최소로 돛줄임하고 스톱 지브를 올려서 본디 성능의 60%로 줄여서 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배는 잘렸고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아 있던 수밀(水密) 벌크 헤드를 모두 막고 이퍼브(EPIRB): 조난 위치 발신기)의 스위치를 넣었다. 미쳐 날뛰는 바다 속에서 드디어 마스트가 쓰러졌다.

슈탐과 규가 구조 활동 그 자체마저 위험한 이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운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시간에 걸친 구출 작업

풍력9(풍속 20.8~24.4m/s)의 해상에서 프랑스와 영국에서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출동하여 궁지에 빠진 두 사람을 향하여 기상에서 라이프 래프트의 투하를 시도했다. 어쨌든 그들을 안전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전부 6개의 라이프 래프트가 투하되었으나 깜깜하고 광란하는 바다에서 그것은 성공할 수 없었다. 맨 처음에는 물에 잠긴 데크 위에서 끌어올리려고 시도했다. 그 다

음에 구난대는 슈탐과 규에게 바다로 들어가서 헤엄을 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것도 잘되지 않자 슈탐은 부서진 배에 필사적으로 헤엄쳐 돌아가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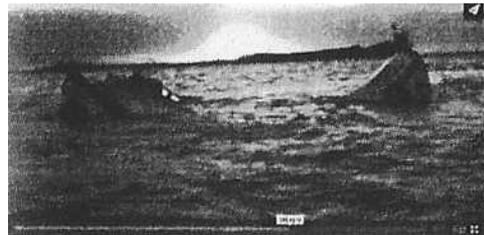
배의 파손으로부터 12시간쯤 지났을 때, 노르웨이 화물선이 현장에 도착하여 두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그들을 무사히 구조했다. 그것은 훌륭한 시맨십이었다. 화물선이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두 사람은 다시금 바다 속에 있었다. <슈미네 푸주라>는 이때 트랜섬만을 바다 위로 드러낸 채 떠 있는 상태였다. 두 사람을 향하여 구명 부이와 로프가 던져졌으나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는, 그들은 위태롭게 화물선에 부딪칠 것 같았다고 한다.

이 구조극의 모양은 읽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한다. 슈탐과 규는 행운의 사나이들이다.

후안 코움잔의 설계정

솔로 또는 쇼트 핸드의 레이서로 바다에서 드라마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거의 없다. 그러한 드라마는 이 타입의 레이스와 보트에는 붙어 다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슈탐의 경우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 경험이 풍부하다.

작년 초, 슈탐은 벤디 그로브 단독무기항세계일주경기에서 실격되었다. 그는 경기 도중, 제네레터의 수리를 위해 뉴질랜드 남쪽 외딴 섬에 배를 댔다. 섬의 정박지에서 배를 어디에도 매지 않은 채 떠 있었는데, 러시아 배가 옆으로 다가와서 그 승정원이 요트에 올라타더니 자기 배에 매고 말았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공개된 <푸주라>의 잘린 앞부분과 뒷부분의 선체가 예인되어 근처의 항구에 수용되었다.

2011년에 슈탐은 잔 프랑소와 규손과 함께 전전 번의 트랜셋 잭 버블에 참가했지만, 이때는 아소레스 제도의 북쪽에서 배에 구멍이 나서 구난기에 끌어올려져 구조되었다. 타고 있던 것도 이번과 같은 후안 코움잔 설계의 IMOCA 60 클래스였다.

2008/2009년의 벤디 그로브 단독무기항세계일주경기에서는 슈탐은 러더의 파손에 맞닥뜨려야 했다. 배는 수 세대 전의 설계인 IMOCA 60 <슈미네

푸주라>였다. 그는 남빙양에 떠 있는 켈게렌 제도에 닳을 주고 수리를 시도했지만, 이때 맹렬한 바람의 습격을 받아 좌초되는 바람에 배는 심하게 파손되고 말았다.

2004년의 대서양횡단 싱글 핸드 경기에 슈탐은 처음으로 자작 IMOCA 60 <슈미네 푸주라 아르모류쿠스>로 참가했다. 그러나 배는 전복되고 말아 그는 탱커에 구조되었다.

따뜻하고 안전한 집 안에 머무는 편이 이 시기에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 옮긴이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재수가 움붙었다”는 우리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경우를 두고 생긴 속담일 것입니다. 난바다 경기의 베테랑일지라도 재수가 없으면 연거푸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좋은 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트경기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는 재수가 없었지만 운이 좋았기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옮긴이.



베르나르 슈탐(50살). 1963.11.29출생. 스위스 주 네브 출신. 2002년 어라운드 도아론경기 우승. 2007년 베룟크스5 오션tm 레이스 우승 등 빛나는 성적을 남겼다.